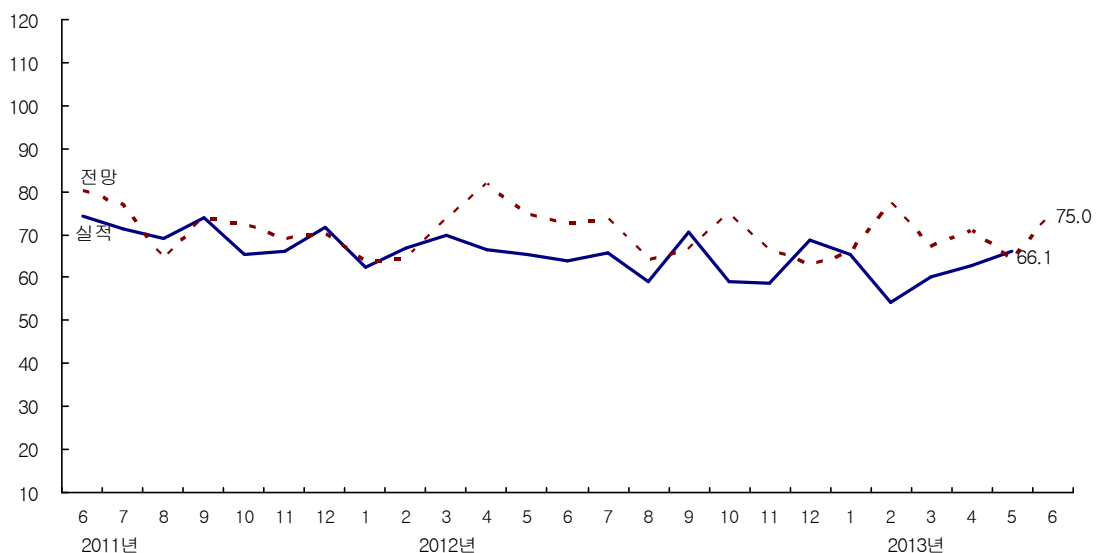


2013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5월 CBSI 3.3p 상승한 66.1 기록
3개월 연속 상승, 올 들어 최고치 기록

- 2013년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3p 상승한 66.1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3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CBSI 수치 자체도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함. CBSI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10년 9~11월 동안 3개월 연속 상승에 이어 2년 4개월만임.
- CBSI가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 2월 CBSI가 30개월만에 최저치(54.3)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3월 이후 건설업 비수기인 흑한기가 끝난 계절적 요인, 그리고 4.1대책과 추경예산 발표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그러나 3개월 동안 CBSI 상승 폭이 11.8p에 그쳐 건설업 체감경기 침체 수준의 회복 속도는 완만한 편이었으며, 5월 CBSI 수치도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6.1에 불과해 건설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가 전월비 상승한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함.
 - 지난 3월에 31개월만에 최저치인 69.2을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4월에 지수가 소폭(2.2p) 상승한데 이어 5월 들어서도 지수가 전월비 7.2p상승해 78.6을 기록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4월 이후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4월에 전월비 5.5p 상승한데 이어 5월에도 전월비 2.8p 상승해 50.9를 기록함. 이는 작년 9월의 56.4 이후 8개월만에 최고치임. 다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함.
 - 한편,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6.7을 기록했는데, 3월 이후 3개월 연속 지수가 66.7에 머물며 체감경기 침체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즉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가 4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한 것과는 대조를 보임.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2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5.7	59.0	70.6	58.9	58.7	68.9	65.4	54.3	60.3	62.8	66.1	64.4	75.0
규모 별	대형	92.9	80.0	91.7	76.9	78.6	92.9	85.7	72.7	69.2	71.4	78.6	64.3	85.7
	중견	56.0	46.2	61.5	57.7	55.6	64.0	66.7	48.0	66.7	66.7	66.7	66.7	73.1
	중소	44.8	49.1	56.4	39.3	38.9	46.3	40.0	40.0	42.6	48.1	50.9	61.8	64.7
지역 별	서울	79.4	63.8	80.5	69.9	69.6	79.3	76.2	63.6	64.8	66.9	68.6	63.6	78.1
	지방	45.2	51.6	56.5	43.2	42.5	52.1	49.0	41.8	53.6	58.7	62.2	67.4	72.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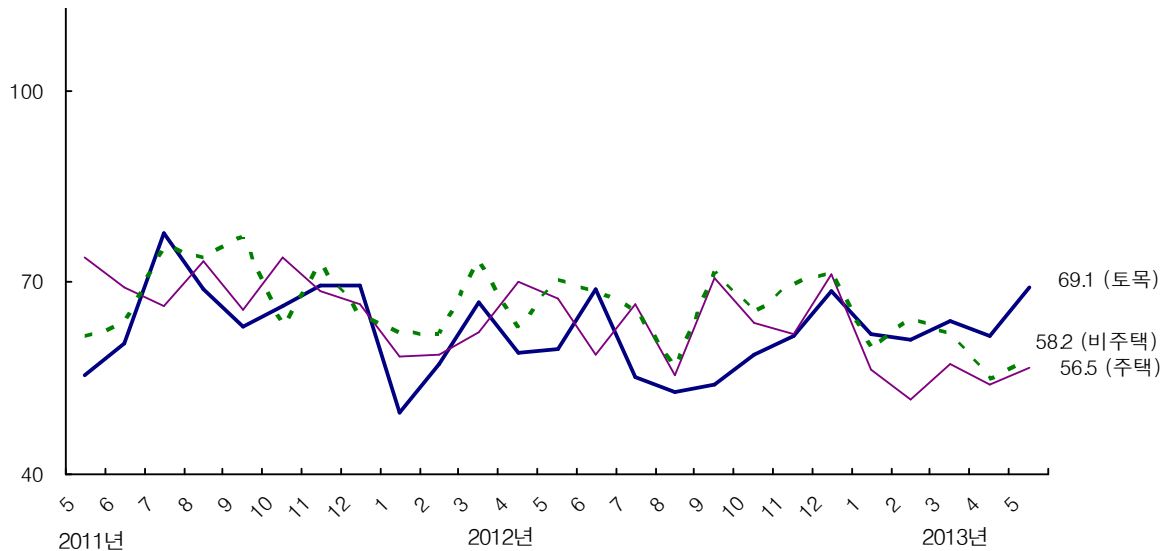
- 한편, 2013년 6월 CBSI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8.9p 상승한 75.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0p 가까이 상승한 것은 그만큼 6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건설업체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3개월 연속 CBSI 상승을 견인했던 기저효과와 계절적 요인이 6월에는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4.1대책 시행과 추경예산 편성 결과만으로 6월 건설업체감경기가 전망치만큼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5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1.2p 상승한 68.6을, 지방은 3.5p 상승한 62.2를 기록함.
- 서울업체는 전월보다 1.2p 상승한 68.6으로 지난 2월 63.6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소폭 지수가 개선됨.
- 다만, 매달 상승 폭이 1~3p에 불과한데 이는 여전히 주택 물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5월 주택 물량 지수는 56.5를 기록해 낮은 수준에 머뭇.
-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3.5p 상승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지수 자체도 62.2로 14개월 내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한편, 2013년 5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5월보다 9.5p 증가한 78.1을 지방업체도 9.9p 증가한 72.1로 전망함.

5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4.9p 증가한 64.6 기록

- 2013년 5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9p 증가한 64.6을 기록해 4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회복함.
- 물량지수는 올 2~4월까지 각각 59.6, 58.0, 59.7을 기록하면서 50선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특히, 3~4월에는 계절적으로 지수가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업체의 물량 침체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 5월 들어 지수가 전월 대비 4.9p 증가한 64.6을 기록해 다시 60선을 회복, 업체의 물량 침체 상황이 최악의 국면은 다소 지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지난 2~3월까지 부진한 상황이 반영된 통계적 반등과 여전히 60선 중반에 불과해 물량이 회복되었다고 여기기에는 어려우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이 69.1을 기록해 전월 대비 가장 반등 폭이 컸으며, 다음으로 비주택과 주택이 각각 58.2, 56.5를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7.5p 상승한 69.1을 기록해 70선에 근접함. 이는 지난 2011년 12월 69.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로 정권 변경과 함께 지연되었던 공공 토목공사의 발주가 5월 들어 일부 발생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2.4p 증가한 56.5를 기록,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50선에 머물렀다. 다른 공종에 비해 상승폭도 낮고 수치 자체도 낮아 여전히 주택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4월 전월 대비 7.0p 하락하여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인 54.9를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로 5월에는 전월 대비 3.3p 증가한 58.2를 기록, 60선에 근접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 중견, 중소 업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형업체가 전월 대비 9.4p 증가해 3.7p와 0.9p 증가한 중견과 중소업체보다 상승 폭이 컸음.
- 대형업체의 지난 4월 물량지수는 4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저치인 69.2에 불과했는데, 5월에는 토목공사 물량지수의 21.5p 증가에 힘입어 전월 대비 9.4p 증가한 78.6을 기록함. 비록 전월 대비 증가하였어도 통상 90~100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중견업체의 경우는 전월 대비 3.7p 상승한 63.0을 기록함. 토목이 61.5를 기록하였으며, 비주택이 57.7을, 주택이 52.0을 각각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4.6	78.6	63.0	50.0	68.6	58.1
	전망	72.4	85.7	65.4	64.7	76.9	65.2
토목	실적	69.1	92.9	61.5	50.0	76.0	58.1
	전망	78.3	100.0	66.7	66.0	84.0	69.3
주택	실적	56.5	71.4	52.0	44.2	56.5	57.1
	전망	70.7	78.6	70.8	61.4	71.1	70.2
비주택	실적	58.2	78.6	57.7	34.8	66.9	44.1
	전망	72.8	85.7	72.0	58.7	76.9	66.3

주 : 실적은 2013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6월 예측지수임.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9p 증가한 50.0을 기록, 11개월 내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토목이 50.0으로 공종별로는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택이 44.2, 비주택이 34.8을 각각 기록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7.4p 증가한 68.6를 기록해 지수가 개선된 반면, 지방은 1.2p 감소한 58.1을 기록해 지수가 소폭 악화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4월의 3.6p 증가에 5월에도 7.4p 증가하여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68.6를 기록함. 여전히 70선에 이르지 못하여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4월보다는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여겨짐. 공종별로는 토목이 76.0으로 가장 양호했으며 다음으로 비주택과 주택이 각각 66.9와 56.5를 기록함.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1.2p 감소한 58.1를 기록,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함.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58.1, 44.1을 기록해 전월 대비 3.9p, 6.3p 감소했음. 한편 주택 물량지수는 4.5p 증가한 57.1로 물량 상황이 소폭 개선됨.
- 2013년 6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5월 실적치보다 7.8p 상승한 7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공종별로 토목이 5월 실적보다 9.2p 증가한 78.3으로 가장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다음으로 비주택이 14.6p 증가한 72.8을 주택이 14.2p 증가한 70.7로 전망됨.

- 토목뿐만 아니라 주택과 비주택 모두 70선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발주 및 공사 물량의 침체 상황이 5월보다는 다소 개선 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1.2, 96.7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8.2, 82.0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5.6, 79.6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85.6	107.1	74.1	73.6	89.9	78.9
		전망	91.7	107.1	84.6	81.6	95.4	87.4
	자금조달	실적	79.6	100.0	70.4	66.0	82.5	74.7
		전망	83.4	100.0	76.9	71.4	86.0	80.9
인력	수급	실적	101.2	107.1	111.1	83.0	110.1	87.0
		전망	101.2	107.1	108.0	86.5	110.6	86.3
	인건비	실적	88.2	100.0	92.6	69.2	97.0	73.9
		전망	91.3	100.0	100.0	71.2	99.1	78.7
자재	수급	실적	96.7	107.1	96.3	84.9	103.0	86.6
		전망	95.1	100.0	96.2	88.2	98.7	89.1
	비용	실적	82.0	100.0	81.5	61.5	91.9	66.0
		전망	85.0	100.0	88.5	63.5	95.0	69.1

주 : 실적은 2013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6월 예측지수임.

끝.